지방선거 월드컵

대목만난 이통·케이블… 더 빠르고 더 즐겁게

이통사 "통신 두절 걱정 NO"

선거일 SNS 트래픽 25% 증가 전망
SKT 특별상황실 운영·이동기지국 배치
KT 시청 등 거리응원 장소 기지국 증설

지방선거와 월드컵을 맞아 문자 메세지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동통신사가 기지국 용량을 늘리는 등 특별소통관리에 돌입한다.

SK텔레콤은 지방선거와 월드컵을 맞아 ▲기지국 용량 증설 ▲특별소통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오는 13일 치뤄질 제 7회 지방선거를 대비해 전국 주요 투표소, 개표소 및 선관위 정당 당사 등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기지국 용량 증설 작업을 완료했다.SK텔레콤에 따르면 13일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 메세지와 각종 SNS 트래픽이 평시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지방선거 당일 특별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약 700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한다. 특별소통 상황실은 통화량 증가·정전 등 돌발 사태에 대비해 통화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월드컵을 맞아 14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특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약 75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서울시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SK텔레콤 직원들이 기지국 용량 증설 작업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특히 SK텔레콤은 이를 대비해 서울시청 광장·영동대로 등 길거리 응원 및 트래픽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지국 용량 증설에 나서는 한편, 이동기지국도 배치할 예정이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신 주관사인 KT는 투표용지·선거인명부 발행 및 개표현황 집계 등을 위한 통신회선을 개통해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비상상황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월드컵 기간에는 거리응원에 대비해 광화문·시청·신촌 등 대표적 거리응원 장소에 트래픽 급증을 대비한 기지국을 증설한다. 아울러 품질 확보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특별 상황실 운영하고, 대한민국 예선전 경기가 열리는 3일 동안 1370여명의 비상근무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케이블업계 "지역성 강화 총력"

CJ헬로 유권자와 '우리동네 선거방송'
티브로드 다원중계… '청년기자단' 운영
현대 HCN 울릉도 첫 군수 후보자 토론회

각 지역 케이블TV가 6·13지방선거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지역성'을 강화하고 있다. 선거 기획단 운영부터 생방송 토론회까지 시민참여형 '풀뿌리 선거방송'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총 2044개의 선거구에서 3550명의 기초·광역단체장, 지역구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7개 선거가 열리는 6·13지방선거에 케이블TV가 지역 맞춤형 선거방송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CJ헬로 지역채널 25번은 '우리동네 선거방송'이라는 콘셉트로 지역 후보자, 유권자와 함께하는 선거방송을 준비했다.

선거 당일에는 12시간 특별 생방송인 '지역이 미래다 특별 개표방송'으로 시청자를 찾는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생방송에서는 재래시장, 노인정 등을 찾아 투표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다문화 가정, 농가 대표, 장애인 연합회 등 지역 내 다양한 유권자들과 만난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개표 방송을 통해서는 지역별 광역 기초 의원 개표 현황을 중계해 지역 밀착형 개표 방송을 구현할 계획이다.

티브로드는 그간의 개표방송 포맷을 탈피하고 유권자와 마주하는 오픈스튜디오형 다원중계방식으로 생중계 개표방송을 할 예정이다. 그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딜라이브는 특별 선거방송 시작과 함께 200여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기자단'을 운영한다.

CJ헬로 지역채널 25 '우리동네 선거방송' 포스터. /CJ헬로

청년기자단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색 있는 선거현장을 포착해 업로드를 하고, 대학생의 시각에서 선거이슈를 점검하고 인터뷰를 통한 리포트를 제작한다. 또 투표참여 독려와 투표 시 유의사항, 공정선거 등을 주제로 캠페인 제작에 참여해 젊은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는다.

현대HCN은 '공정선거 보도 실천 선포식'을 진행하고, 사전 홍보를 강화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지역현안에 대해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울릉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울릉도 현지에서 열기도 했다.

케이블TV에서 방송되는 후보자 토론회 등 지방선거 관련된 콘텐츠는 각 지역별 케이블TV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AI '챗봇'이 AS상담부터 예약까지 '척척'

LG전자 챗봇 애프터서비스 제공

LG전자가 챗봇 서비스를 12일 본격 개시했다.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이 결합된 단어로 고객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차별화된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한다.

LG전자가 고객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다. 챗봇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고객과 문자로 대화하며 제품의 이상 원인을 파악해 방문예약, 소모품 구매 등 알맞은 해결방법을 제시해준다.

고객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365일 24시간 어디서나 제품의 고장 원인과 해결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원 연결이 불가능한 휴일이나 늦은 저녁시간에도 간편하게 상담이 가능하고, 월요일 오전이나 연휴 다음날 등은 고객들의 문의 접수가 많아 상담원과의 통화 연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 LG전자는 챗봇 서비스에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씽큐(DeepThinQ)'를 적용했다. 딥씽큐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해 스스로 학습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담 서비스가 더욱 정교하고 빨라지게 된다.

LG전자 챗봇 서비스의 사용방법은 스마트폰 혹은 PC로 LG전자 고객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화면 하단에 있는 '채팅상담' 버튼을 누르면 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현대차, 모터스포츠 명가로 '우뚝'

올해만 랠리·서킷서 8회 우승
고성능사업 경쟁력 강화 '결실'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재 영입 노력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올 들어서 자동차 랠리대회인 '2018 월드랠리챔피언십'과 서킷경주 대회인 '2018 WTCR'에서 총 8번 우승하며 모터스포츠 명가로 우뚝섰다. 모터스포츠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높은 기술 경쟁력을 현장에서 입증하는 대회라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이탈리아 샤르데냐에서 열린 '2018 WRC' 7차 대회에서 현대 월드랠리팀 소속 티에리 누빌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차는 올 들어서 WRC에서만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18 WRC 이탈리아 랠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티에리 누빌(오른쪽)과 니콜라스 질술이 우승을 차지한 뒤 환호하고 있다.

그간 현대차는 WRC 출전 이래 통산 10번째 우승을 달성했으며, 이번 우승을 바탕으로 제조사 종합순위에서도 2위인 포드 월드랠리팀과의 격차를 28점까지 벌렸다. 누빌도 이번 우승으로 드라이버 종합 순위에서 총점 149점을 기록하며 2위 세바스티앙 오지에 선수를 27점 차이로 앞섰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인 '2018 WTCR'에서도 첫 판매용 경주차 'i30 N TCR'로 총 5번 우승을 달성했다.

/양성운 기자 ysw@

KT, 러시아·캐나다도 '로밍ON' 지원

KT는 해외에서 음성통화 요금을 국내와 똑같이 1초당 1.98원을 적용하는 '로밍온(ON)'을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12일부터 러시아, 캐나다에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KT 로밍온은 5개국에서 제공된다.

이전까지 러시아, 캐나다에서 음성통화할 경우 1분에 러시아는 최대 5003원, 캐나다는 최대 2277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로밍온 서비스 적용에 따라 러시아, 캐나다에서 음성통화할 경우 1분에 119원, 10분에 1188원만 부담하면 된다. 로밍온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KT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된다.

KT는 지난 5월 30일 첫 선을 보인 로밍온이 적용된 미국, 중국, 일본에서는 음성통화량이 일 최대 2배, 음성 이용자도 일 최대 50%까지 증가했다. /김나인 기자

현대로템 佛 방산전시회 참가… 유럽시장 공략

현대로템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에 참가해 전차와 차륜형장갑차 홍보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11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로사토리 지상무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로사토리 전시회는 프랑스 지상장비협회 산하 전시위원회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다. 올해는 전세계 60개국에서 1700여개 방산업체가 참가한다.

현대로템이 유로사토리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2전차, 차륜형장갑차 등 방산부문 주력 제품군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영업활동과 함께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주요 방산시장에서의 신규사업 소요를 발굴한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 K2전차, 8x8 차륜형장갑차, 장애물개척전차 등 주요 제품들의 모형을 전시하며 유럽 및 중동지역 방산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홍보하고 방산부문 사업 확대를 도모한다.

프랑스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 현대로템 전시관 전경. /현대로템

/정연우 기자 ywj964@